

오스트리아에서 뜨는 자판기 사업



KOTRA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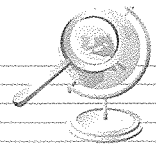
자판기 보급률 EU 국가 중 6위 현재 총 시장 규모 3억 유로로 성장 가능성 높아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대형 건물, 병원,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약 7만대의 자동판매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는 자판기 한 대당 117명의 보급률로 EU 내에서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분야 세계 선두인 일본의 42명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전체 인구 800만의 소국인 오스트리아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보급률이라 할 수 있다.



■ EU 국가 자동판매기 보급률

순위	국가명	자동판매기(대)	인구수(백만명)	보급률(총인구/자판기)
1	벨기에	107,500	10.1	94
2	영국	494,800	51.0	103
3	이태리	553,000	57.6	104
4	네덜란드	152,200	16.0	105
5	프랑스	560,000	59.0	105
6	오스트리아	69,500	8.1	117
7	덴마크	41,500	5.3	127
8	독일	406,000	82.0	201
9	그리스	7,000	10.3	1,471
참고				
	일본	2,800,000	120.0	42

※자료원 : OVV

냉은 음료, 스낵류, 담배, 즉석 사진, 즉석 복권 등 다양한 품목이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자판기의 절반 이상을 커피자판기가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성장세가 눈에 띄는 부문은 스낵 및 음료를 판매하는 자판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자판기업자 연합(OVV)의 대표인 Johann Wieland氏에 따르면, 현재 오스트리아 자판기 업계는 기업수 70개, 총 시장 3억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3%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자판기 사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현금 도난 사고이다.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동판매기용 결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 PDTS의 마케팅 부장인 Herbert Stifter氏에 따르면, 현재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많은 장소, 특히 학교에서 일주일에 평균 2~3건의 자판기 현금 탈취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이러한 도난 위험에 대한 최상의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판기 제품 구입에 대해 신뢰성 등의 문제로 어느 정도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이 제품의 광범위한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현금 도난의 위험이 없는 카드 사용 자동판매기가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판기 업계와 관련해 최근에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추세는 바로 '운영업자들의 동진(東進)'이다. LLI 그룹의 자회사로 중부 유럽 자판기 운영업의 선두 주자인 Cafe+Co Internacional Holding(舊 Vending Holding)의 CEO인 Gerald Steger氏에 따르면 최근 동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다수의 자판기 운영업체들이 동유럽 국가들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東進 추세가 눈에 띄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향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오스트리아 자동판매기 운영업 및 관련 설비분야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노력을 기대해 본다.